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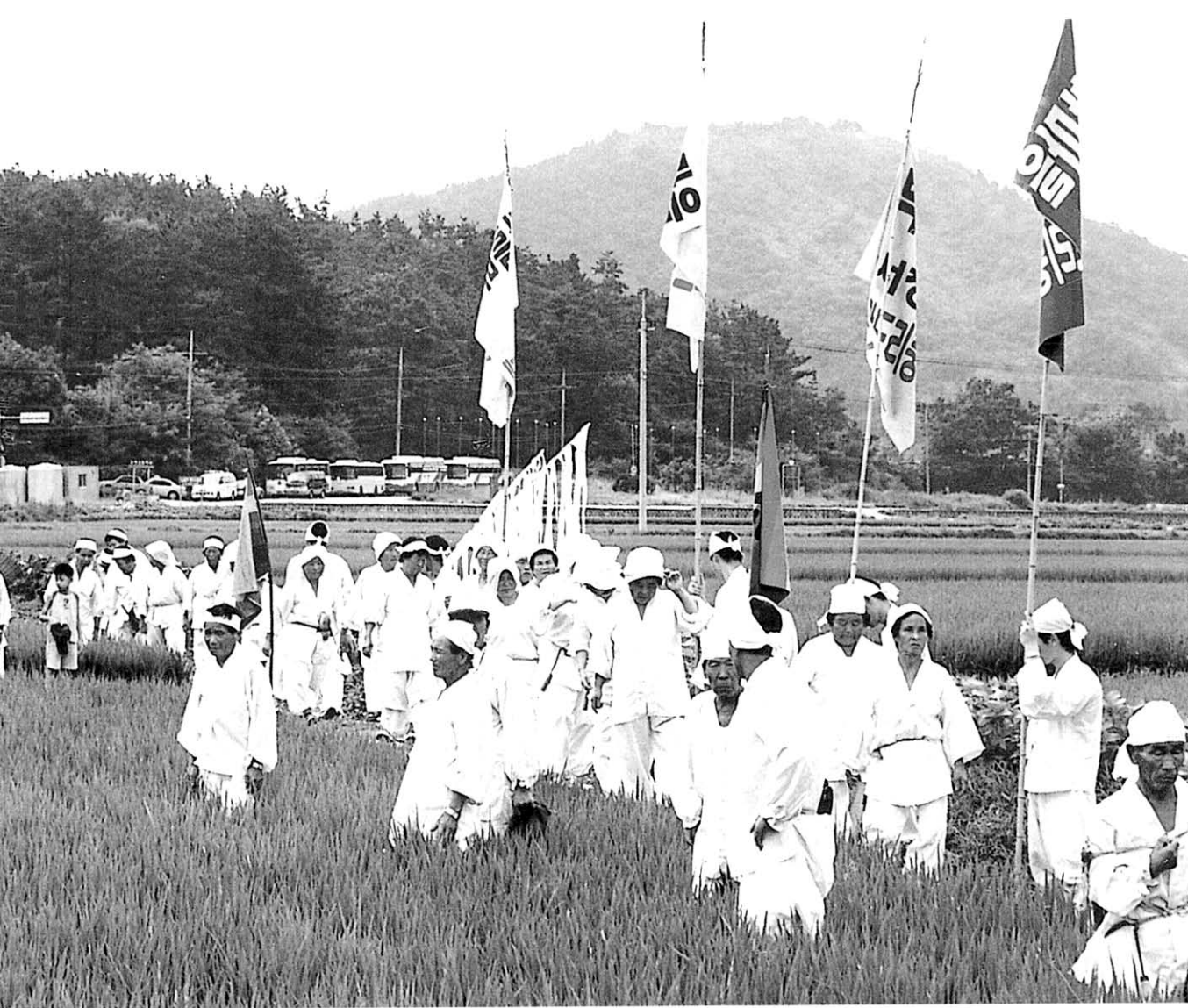
농사일의 고됨을 달래는 '서창 만드리 풍년제'

지금은 영농의 기계화와 제초제의 사용으로 논에서 잡초를 뽑는 광경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가뭄과 홍수, 병충의 해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해도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벼가 제대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피를 비롯한 잡초의 제거는 곧바로 수확량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지나다가 피가 벼보다 높게 자라 오른 것을 보면 그 논 주인의 게으름을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하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농군으로서의 부지런함을 경쟁시키는 농촌 공동체의 문화는 한창 벼가 자랄 때인 초여름의 피약벌과 함께 더욱 고달픈 노동의 나날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모작을 하게 되는 남부지역의 농촌은 살구가 노랗

게 익기 직전부터 시작되는 보리 베기와 타작, 모내기에 이은 김매기로 눈코 뜰 새 없는 한여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칠월 칠석에서 백중쯤이 되면 벼가 이삭을 내밀고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비눈에 드나들면 꽃이 떨어져 소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소간의 여유를 부려도 될 만 하다.

백중(百中)은 '여름짓다'라는 옛말처럼 밭매기와 논매기 등 농사일이 한창인 계절. 그러나 '어정 7월, 동동 8월'이라는 옛말처럼 농촌의 7월은 바쁜 농번기를 보낸 반면, 추수를 앞둔 달이라 잠시 허리를 펼 수 있다는 즐거움도 내포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날 농가에서는 머슴들과 일꾼들에게 후한 아침상과 함께 돈과 휴가를 주며 즐겁게 놀도록 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백중돈 탄



다'는 말의 유래가 되었고 '백중놀이'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

고달픈 작업을 달래는 '농요'

곡창지대로 이어지는 전라도 땅은 유달리 소리가 다양했고 끈도 지천이었다. 논일을 하던 농군들도 일반 묵묵히 하란 법이 없었다. 고달픈 작업 속에 흥얼거림은 가락으로 변했고, 신명난 노동요를 만들어 냈다. 노동의 고달픔을 달래던 가락이 흥에 겨운 '농요'라는 한 장르로 발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문화로 전해오고 있다. 그야말로 흙냄새가 물씬 풍기는 농요는 바로 자연의 얼굴이자 농민들의 삶 자체인 것이다.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온 민요만을 노동요라고 한다. 노동요는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을 가진 민요로서 의식요·유희요와 함께 기능요에 속한다.

노동요는 노동을 즐겁고 능률적으로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집단노동을 할 때는 행동통일을 위한 구령의 구실을 하여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고, 행동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루함을 잊게 하며 협동정신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제강점기 동안 민요는 민족의 정서를 집약하고 일제에 대한 항거의 의지를 나타내다 고 하여 탄압을 받아 명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해방 이후에는 상업주의의 산물인 유행가 또는 대



주민전체가 함께 잔치를 벌이며 풍년을 기원하는 모습(왼쪽) 동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오른쪽)

증가요가 보급되고, 농촌사회의 전통적 생활방식마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민요는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창 만드리

모심기나 논매기처럼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는 보통 2, 30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일을 했고, 방아찝기와 같은 가사노동이라도 서너 집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때 불리게 되는 집단노동요는 앞소리꾼이 소리와 일을 이끌어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정한 후렴구를 반복해 부르는 '메기고 받는 방식'이 가장 많다.

광주시 서구 서창들녘 일대는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 지류 극락강을 끼고 있어 농사가 발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예로부터 '서창 만드리'라는 독특한 농요를 만들었다. '만드리'란 논을 매기, 즉 맨 나중에 논에 자라는 잡초를 없애는 일로 '만물'이라고도 하는 '만도리'에서 유래된 말이다. 서창 만드리는 세 번 김매기를 하며 불렀던 것으로 7월 백중(음력 7월 15일)에 불렀던 노동요이다.

논에서 김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만드리는 앞소리꾼이 '천하지대본은 농사로세 이 농사 얼른 지어 /부모봉양도 하여보고 나라봉양도 하여보세'라 선창 하면, '오호~호호~에~헤에~루 상사-하~뒤여'라며 뒷소리꾼이 후렴을 받는 형식이다.

오호~ 오호~ 에~헤에 루 상사-하~뒤여
 잘도 허네 잘도 허네 우리 농군들 잘도 허네
 얼시구나 절시구나 얼시구나 잘도 허네
 이마 위에 흘린 땀은 방울방울 열매 맺고
 골무 끝에 묻은 흙은 텅얼 텅어리 황금이로세
 한 골 매고 두골 매니 노래 가락이 절로 나네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덩북 묻어 오네
 비가 덩북 묻어 오니 우장을 두리고 샷갯을 쓰소
 풍년일세 풍년일세 우리나라가 풍년일세
 이 베미가 다 되었으니 장구 베미로 넘어 가세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어느 시절에 또다시 올까
 임아 임아 우리 남아 온다는 기약이나 하여 주소

불과 같이 더운 날에 매울 같이 지심 매세
 일시구나 절시구나 지화자자 좋을시구
 (서창 만드리 소리)

백중놀이는 힘겨운 쉰벌논매기를 끝내고 여흥으로 다양한 놀이판을 벌여 온 데서 비롯된 풍습으로, 이날 그 해에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하루를 즐겼다. 이를 '호미씻이'라 하는데 지방에 따라 초연(草宴), 풋굿, 머슴날, 장원례(壯元禮)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장원한 집의 머슴을 다양하게 꾸며 지게, 사다리나 황소에 태워 집집마다 돌아다닌다. 그 집주인은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니, 이 날은 바로 '머슴날'인 셈이었다.

대개 들노래란 농부들이 모판에서 모를 썬 심고 김을 매며 '힘에 겨워 흥을 돋우기 위해' 부르던 노래로 농사의 전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서창 만드리는 마지막 김매기 때의 소리와 농악소리에 맞춰 마을로 돌아올 때 부르는 '장원질소리'로 나뉘어진 형태가 백중놀이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마지막 김매기 후 농사가 제일 잘 된 농가의 머슴에게 어사화를 씌워 황소를 태우고 돌아온 후 잔치를 열어 위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세벌 김매기가 끝나면 머슴 가운데 한 명을 뽑아 황소를 태우고 돌아오던 모습과 김매기 후 잠시 여유를 즐기던 '망중한(忘中閑)' 바쁜 일상에도 멋스러움이 베어난다.

주로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드리는 당시 풍악이나 두레가 성행했던 터라 자연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게다가 풍작과 더불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른 들노래와 마찬가지로 서창 만드리 역시 내용에서 풍년기원, 입에 대한 그리움, 충·효, 인생무상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농주가 상노에게 술을 권하니, 이 날은 바로 '머슴날'인 셈이다.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

조상 대대로 전해오며 농민들의 희로애락을 노래 속에 담았던 많은 농요들은 최근 농촌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데다 작업이 기계화되면서 점차 잊혀지고 있다. 서창 만드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것이 세월의 변화와 함께 인멸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지난 99년 광주시 서구청의 도움으로 서창만드리추진위원회(위원장 김덕수, 발산마을 이장)가 서창동의 발산, 중촌, 동하 등 자연마을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들노래 만드리를 되살리는데 성공, 주민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통축제로서 서창뜰에서 해마다 시연하고 있는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의 김하정 씨는 "잊혀져 가던 만드리의 노랫가락을 복원하고 풍년제를 성공적으로 재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발산마을 주민들의 고령화에 대비한 전문 소리꾼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통민속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체계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양금식〉